

# 大學 授業계획서의 開發과 活用 전략

全 成 連  
(高麗大 教育學科)

과거 實驗大學 선정 요건 중 하나였던 授業計劃書 活用與否는 실험대학 선정의 방편으로 인식되어 그 作成이 形式化·定型化되었지만, 이제까지 아무런 批判·自省 없이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授業計劃書가 교수-학생 간의 公式的 對話通路로서 實際的 도움을 주지 못하고 행정 처리애나 필 요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이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 1. 韓國大學의 授業環境

授業計劃書(syllabus)가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작성하느냐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의 授業環境이 어떠한가를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수업 환경은 오랫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敎育의 場이란 원래 이런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국제적인 비교를 해보거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수업 환경이 매우 劣惡하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된다.

열악한 수업 환경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過密學級이다. 1989년 UNESCO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42명으로 세계 최하위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10명, 말레이시아는 14명이고 最貧國인 방글라데시도 27명에 불과하다. 學生數가 많다는 것은 학생 하나 하나에 關心을 기울일 수 없고 敎育의 質을 높

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落後된 施設이다.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는 어느 대학이고 講義 이외의 다른 敎授法을 생각하기 어렵다. 학생 수는 많고 교실 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은 강의로 시작해서 강의로 끝난다. 수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는 實驗·實習施設, 미디어 센터, 學科圖書室 등 제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또한 학생의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다. 교수의 강의 내용을 메모하고, 기억했다가 시험 볼 때에 재생하는 것과 같은 수동적이고 타성적인 학습 방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探究的으로 학습하라는 교수로부터의 요구도 없고, 학생도 수강 과목이 너무 많아서 수동적인 학습 방법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일방적인 강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授業環境에서는 학생과 교수 간에 相互作用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서관 시설의 미비, 참고

자료의 부족, 게다가 학생들은 학문적 성향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를 짜는 데 유리한 대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마저 있어서 학생들에게 학문 탐구의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반면에 教授들도 반성해 볼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授業은 知識傳授式 강의 일변도로 이루어져 왔다.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干涉도 不容하고, 만일 간섭을 받는다면 敎權에 대한 중대한 侵襲로 생각하는, 즉 '가르치는 것'은 治外法權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교무처 등에서 교수 계획서를 만들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수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마지못해 규격화된 教授計劃書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업 환경이 열악한 경우, 잘 정리된 수업 계획서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이 수업 계획서는 다인수 학생과 교수 간의 충분한 개인적 접촉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학생과 교수 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관한 최소한의 공식적인 대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形式的 授業計劃書의 問題點

대학의 教育課程은 학문 영역간 또는 가르치는 교수 상호 간에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改革이 참으로 어려운 영역이다. 가르치는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教授計劃書는 교육과정의 설계·편성으로부터 導出되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논의를 좁혀 현재 우리 수업 계획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업 계획서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활용해 온 수업 계획서는 형식적으로 規格화된 1~2장 정도의 빈약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형식적 수업 계획서가 보편화된 이유는 '70년대에 실시되었던 大學教育改革事業에 연유한다. 대학교육 개혁 사업의 주요 골자는 개혁 요건을 갖춘 實驗大學에 대해서

졸업 학점을 160에서 140으로 줄여 주는 것이었다. 이는 私立大學의 경우, 학교 경영과 직접적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각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실험대학에 選定되고자 노력하였다. 실험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條件이 충족되어야 했는데, 이중 하나가 수업 계획서의 活用與否였다. 각 대학들이 수업 계획서를 실험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하여 효율성이 있는 없는 간에 형식적일지라도 모든 교수들이 매학기마다 수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이후에도 아무런 批判이나 自省 없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形式화된 수업 계획서에서 얻을 수 있는 情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업 계획서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受講申請時 학생들은 과목에 대한 情報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학기초에 과목을 들어 보고,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수강 과목을 정정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러한 형식화된 수업 계획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학기초의 이와 같은 혼란은 바로 재정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 大學行政 업무상의 浪費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만약 수업 계획서가 효과적으로 잘 짜여진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형식적 수업 계획서는 또한 授業改善에 대한 교수들의 熱意를 저하시키는 逆作用을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수가 大學行政當局의 요구로 형식적인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의 수업에 있어서는 授業計劃書 따로, 授業 따로, 評價 따로 진행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醫科系나 理工系처럼 진행되어야 할 절차가 확실히 있는 경우는 덜하지만, 人文社會계통에서는 수업 계획서 상에 계획되지 않은 엉뚱한 主題가 포함될 위험성이 언제나 있는 것이다. 학생 편에서 보아도 이와 같은 엉성한 文書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情報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3. 授業計劃書의 必要性

잘 구성된 수업 계획서는 학습자에게 여러 가지 편리함을 준다. 우선 수업 계획서는 학습에 대한 指針書의 역할을 한다. 무엇을 배울 것이며,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인가, 어떤 책을 보아야 하며, 評價는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 등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주어 새로운 학습에 대한 학생의 準備度(readiness)를 높일 수 있다.

교수에게도 이익이 있다. 수업 계획서는 수업에 대한 指針書의 역할을 한다. 教育課程에 충실한 수업을 함으로써 교수의 責務性(accountability)을 높일 수 있다. 특히 醫學이나 理工系처럼 學習位階가 분명한 분야에서는 學習損失을 없애기 위해서도 수업 계획서가 필요하다. 또한 교수 자신도 먼저 가르치기 전에 수업을 연구하게 되므로 獨創性·效率性을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가르치는 과제에 대한 교수의 專門性을 높이게 된다.

수업 계획서는 成就約定書(performance contract)와 같은 역할을 한다. 교수는 수업 계획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教科內容과 授業方式를 알려 주고 그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묵시적으로 약속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目標水準을 사전에 제시하여 수업 종료시 달성해야 할 학업 성취의 최소 수준을 학생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업 계획서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교수와 교수 간의 意思疏通手段(communication channel)이 된다. 지금과 같이 교수 간에 수업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작성된 수업 계획서를 통해 타 교과 혹은 유사 교과와의 重複과 空白를 피하고 均衡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업 계획서를 교환하여 가르치는 문제에 대한 교수 상호 간의 閉鎖性을 극복할 수 있다.

수업 계획서의 작성은 大學 行政當局에도 유익함을 준다. 수강 신청 변경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행정상의 效率性을 증진시킬 수 있고, 교수의 수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세울 수 있다. 行政體制와 授業體制를 연결시켜 주는

데 있어서 수업 계획서는 가장 분명한 公式의 文書가 될 것이다.

### 4. 授業計劃書의 內容

수업 계획서는 꼭 이래야 한다는 定型的인 형태는 없다. 수업 계획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內容을 포함해야 하지만, 여건에 따라 이 중 어떤 要素가 제외될 수 있고 여기에 예시하지 않은 요소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 ① 教科 目標

목표를 진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次時目標나 單元目標를 진술할 때에는 대체로 학습의 결과가 학습자의 行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明細的으로 진술하는 경향이지만, 教科目標에 있어서까지 명세적 목표를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자가 어떠한 지식을 배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즉 교수가 이 수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된다.

#### ② 教科 性格에 대한 概括的 紹介

해당 학문 분야의 최근 研究動向, 중요한 內容, 현실적 制限點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그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概念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학습 과정에서 先行組織者(advanced organizer)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③ 主要內容과 時間配定

週別 혹은 內容領域別로 나누어서 어떤 내용에 얼마 만큼의 시간이 할당되며,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時間計劃을 전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다음에 설명되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 '학생에 대한 요구 사항' 등과 함께 表로 제시될 수도 있다.

#### ④ 教授-學習方法에 대한 案內

학생의 學習方法과 교수의 授業方法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시한다.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는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될 수도 있는데, 교수-학습 방법이 다양할 때에는 주별 또는 차

시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도 좋다.

#### ⑤ 先修學習과 後續學習에 대한 情報

특정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먼저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또는 이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준다.

#### ⑥ 學生에 대한 要求事項

학생들이 수업 과정에서 해야 할 요구 사항(예를 들면 노트 정리, 숙제, 과제, 독서, 견학, 실습 등)을 진술한다. 교수-학습에 관련된 요구 사항은 포괄적으로 모아서 제시할 수도 있지만, 진도가 나아감에 따라 보다 세분화시켜 요구할 수도 있다.

#### ⑦ 評價 原則

평가의 기본 원칙과 배점, 시험시 유의 사항 및 예시적 평가 문항(시험 문제의 예)을 제시한다. 대체로 출석, 과제 제출, 중간 및 기말고사의 비중을 제시하게 된다. 교수가 특별히 成績 評價에 반영하고자 하는 요소가 있으면(예를 들면 퀴즈 점수 반영, 토론 참여의 정도 등) 그것이 제시되어야 한다.

#### ⑧ 參考文獻

학생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 문헌으로 제시한다. 이 때 내용과 관련된 페이지 수를 적어 주는 것도 친절한 일이다. 필요한 참고 문헌을 구비한 도서관의 소개와 함께 도서 청구 번호를 적어 주는 것도 좋다. 만일 과제 도서실이나 학과 도서실이 있다면, 그 학기에 필요한 자료들(책, 논문 등)을 모아서 담당 교수의 이름으로 備置하는 것도 열람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다.

#### ⑨ 主要 概念 및 用語(Glossary)

그 과목에 나타나는 주요 用語를 정리해 주되, 자세한 설명을 첨가하지 말고 그 용어는 어떤 책, 어느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明記해 주어 학생들이 언제든지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모두 수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科目 및 教授 特性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밖에 교수와 학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가 있으면 添加할 수도 있다. 수업 계획서는 교수의 가장 독창적인 作品이 되어야 한다.

## 5. 授業計劃書의 開發과 活用方案

수업 계획서는 大學 教科運營에서 의도하는 교수-학습의 전모가 가장 잘 집약된 文獻라는 점에서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교 행정가 모두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한국 대학에서 수업 계획서의 작성은 실험대학 사업을 계기로 보편화되었지만, 대부분 지나치게 劃一化·定型化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수업 계획서는 학생들이 강의 내용과 수업 방법 및 성적 평가의 準據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하여 좀더 분명한 目標과 方向感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에게는 수업을 위한 안내서가 됨으로써 자신의 教授行爲를 스스로 規制하고 수업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게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작성하고 있는 규격화된 수업 계획서는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교 행정가 누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교과 特性이나 교수의 학문적 定向에 상관없이 전채 교과목이 동일한 양식으로 통일되는 것은 오히려 副作用을 낳을 수 있다. 획일적인 수업 계획서는 학생과 교수의 創意力을 위축시키고 發達的·生成的 과제를 다루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면 행정 직원들이 교수의 수업 행위를 統制하는 수단으로 쓰일 염려마저 있다. 수업 계획서가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행정 처리를 위해서나 필요하다면, 그러한 수업 계획서는 만들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런데 수업 계획서를 학생과 교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 속에 온갖 잡다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수업 계획서는 總體的·方向提示的이어야 하고 利用者의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수업 계획서의 직접적 이용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학기 수업이 끝나면 수업 계획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으며,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생 의견을 듣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수가 意圖하는 것과 학생이 知覺하는 것 사이에는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는 수업 계획서가 결코 修正할 수 없는, 수정되어서는 안 되는 教授權을 상징하는 權威의 산물로 볼 것이 아니라 인제라도 변화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生成的인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업 계획서의 開發은 담당 교수 자신이 해야 되지만, 학과 단위의 共同作業을 통해서 개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研究費를 배정할 때, 개인 과제 이외에 학과별 수업 계획서 개발 과제에 일정 비율을 배정한다면 교수들 간에 교수 계획서 작성에 대한 공동 관심과 協同作業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교과 운영에 대한 理解의 폭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과 단위로 교육 과정이 운영될 때, 매학기마다 새로운 수업 계획서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수업 계획서를 한 권의 책자로 제작하고 신입생에게 대학 요람과 함께 배부해서 졸업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학기마다 수정된 부분만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학과에서 만드는 수업 계획서의 標準化 문제는 그 학과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과별로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든, 교수마다 다른 양식을 사용하든 그것은 학과 교수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성격이 반영되도록 각자 편리하고 효율적인 양식을 택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우리나라의 교수 사회에서는 수업 계획서에 대한 認識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즉, 교수들 자신이 수업 계획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 초임 교수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서 수업 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講義와 實習을 한다던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수 자신이 수업 계획서에 충실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수업 계획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대학의 행·재정적 支援이 수반되어야 한다. 수업 계획서에 제시된 參考資料는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우선적으로 確保되어야 하니,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課題圖書室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學事運營 방침도 수업 계획서 활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학사 관리자들이 수업 계획서에 關心을 가지고 있으면 교수들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活用度도 높아지게 된다. 學長, 敎務處長 등 학사 행정의 책임자들이 수업 계획서의 有用性에 대하여 교수보다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 6. 맺음말

교수는 敎授·研究·社會奉仕·學生指導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專門家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授業活動이다. 수업단을 생각할 때 어떤 內容을 어떤 方式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곧 수업 계획서로 나타나는데, 이는 교수의 專門性·責務性·效率性 提高에 직접 관련된다.

그러나 수업의 형식이 정형화될 수는 없다. 학문의 특성이나 교수 자신의 選好에 따라 수업의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다. 學生活動을 중시하는 學生中心의 수업일 수도 있다. 교수 자신의 理論이나 知識을 형식에 구애될 없이 폭 넓게 피력하는 敎授中心의 수업 형태일 수도 있다. 또 敎育課程에 충실한 수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계획서에 충실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수업 계획서도 학문의 성격, 교수의 성숙도 및 취향,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풍부성 등에 따라 양식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업 계획서는 그 자체가 獨創性을 가질 수 있고, 그 독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오늘날 大學敎育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대학 내·외에서의 압력이 점차 가중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대학에서 교수 인원의 보강, 제반 시설 및 도서의 확충과 함께 창의적인 수업 계획서가 꾸준히 開發되어 충실하게 活用된다면, 秀越性·責務性·專門性·效率性 등 대학 교육의 질 향상에 관련되는 다양한 社會的 要求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